

## 신기한 보석

“와, 정말 보람찬 여행이었다.”

우영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의 수화물 찾는 곳에 서 있다. 거대한 캐리어 2개가 나올 때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우영은 수화물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여행을 복기해 보기로 결정한 다. 그가 일하는 회사에서 간 출장이었지만, 그의 연차 휴가를 사용해서 후반 3일 정도는 여행도 다녔다. 오랜만에 이국적인 풍경을 보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배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번 여행에서 제일 만족한 것은 바로, 그가 차고 있는 목걸이었다.

“와, 이 목걸이 정말 특이하네요!”

우영은 원주민들의 판매대에서 신기한 모양의 목걸이를 보았다. 모아이 석상과 비슷하게 조각되 어 있는 광물이 달려 있는 목걸이었다. 보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 돌덩이를 조각해서 만들 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한 그런 목걸이었다.

“이거 얼마예요?”

우영은 영어와 함께 손짓으로 가격을 물어보았다. 원주민은 예상보다 50% 싼 가격에 목걸이를 내준다. 우영이 목걸이를 구매하자마자, 원주민은 우영에게 바로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우영은 강권에 마지못해 목걸이를 차본다. 시원한 느낌이 우영의 몸으로 퍼져 나가면서, 그의 기분이 상 쾌해진다. 우영은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원주민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다.

“어, 저기 내 캐리어!”

우영이 여행의 추억을 곱씹는 사이 벌써 우영의 캐리어는 멀어지고 있다. 그는 험레벌떡 뛰어가 서 캐리어를 잡는다. 캐리어는 너무 커서 우영의 가슴 바로 밑까지 온다. 우영은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가려고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드는 것조차 힘들다. 집으로 가는 버스에 캐리어를 놓고 우 영은 힘들어서 잠에 빠진다.

“와, 이제 겨우 끝났네...”

우영이 그의 집에서 짐정리를 끝낸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다. 그가 짐정리를 하고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어이, 귀국 축하한다. 그런 의미에서 헬스장에 운동하러 와야지!”

바로 그의 친구였다. 그의 친구는 운동 중독자라고 불릴 정도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였 다. 덕분에 피지컬이 좋아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을 정도였다. 우영도 그가 직원으로 있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귀찮았다.

“나 아직 시차 적응도 안되었어, 친구야...”

“오늘 땀 짙 뻘채로 운동하고 자면 해결될거야, 알겠지? 얼른 와..”

우영은 한숨을 쉬면서 그가 있는 헬스장으로 향한다. 이때, 우영은 그가 차고 있던 보석 목걸이를 착용한 채로 향한다. 그것이 어떤 사건을 일으킬지 전혀 신경도 안 쓴 채.

“너, 여행하면서는 운동 안 했지? 오늘 너 아주 죽을 만큼 힘들 거다.”

우영의 친구는 그가 여행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엄청나게 힘든 운동 루틴을 준비했다. 물론 우영이 여행 동안 많이 걸어다니긴 했지만, 그의 친구의 말처럼 전신을 쓰는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군말없이 친구의 지시에 따른다. 운동이 계속될수록, 우영의 입에서는 거친 호흡이 흘러나온다. 그의 몸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영은 자신이 차고 있던 보석이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자, 한 세트만 더!”

우영은 힘을 주어 역기를 든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달랐다. 예전에는 친구의 지옥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죽을 듯이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약간 힘이 들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오늘 운동 해보니까 어때?”

“약간 힘들긴 한데, 버틸만 하네.”

“거봐. 이게 다 운동해서 그렇다니까! 다음에 올 수 있을 때 또 와! 뭐 퇴근하고 시간이 나가거나 그럴때 말이야.”

그렇게 운동을 마친 우영은 집에 가서 몸을 씻고 나서 바로 잠에 폴아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아침을 알리는 알람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우영의 눈은 자동으로 떠졌다. 보통 심한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에는 근육통 때문에 아파서 일어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피로가 사라진 것 같았고 정말 개운했다. 정말 완벽한 하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적인 기운이 우영에게 스며들었다.

“일단 세수부터 하자.”

세수를 하기 위해 거울을 보러 간 우영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다. 나무 토막처럼 평평한 그의 몸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날씬하던 그의 팔에 새싹이 돋아나듯 팔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의 말랑말랑하던 가슴이 딱딱해지기 시작했으며, 뱃살이 튀어나왔던 그의 배는 사라지고 세로로 복근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이건 꿈인가?”

거울을 쳐다보던 우영은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조금 더 꾸물거리면 회사에 지각할 뻔했기 때문에, 그는 빠르게 씻고 회사로 갔다. 그는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다. 평소라면 지루하게 느껴졌을 회사 일도 오늘따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오, 우영! 너가 먼저 헬스장을 다 오는 게 신기하네!”

“요새 운동을 하니까 몸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오늘은 좀 더 강한 강도로 운동을 해 볼까 하는데, 가능할까?”

“당연하지, 너의 한계를 맛보게 해 줄게.”

우영의 친구는 어제보다 더욱 강한 강도로 우영을 트레이닝한다. 우영은 운동을 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치는 것은 잠시뿐이고, 오히려 땀방울이 흐르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 헬스장에 방문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하지만, 우영을 제외한 헬스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련이 시작되었다. 우영이 운동을 할 때마다 그가 차고 있는 목걸이가 반짝거렸다. 그 목걸이는 우영의 주변에 있는 근육질인 사람들의 근력 에너지를 빨아들었다. 지속적으로 근력 에너지를 빨아들인 사람들은 근섬유의 크기와 길이가 줄어들면서 힘이 약해지고 있었다. 이들은 그들이 원래 들던 역기 무게를 제대로 들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운동법이나 식이요법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한계를 맞게 되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신비한 목걸이를 가진 우영과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한 것이 잘못일 뿐이다.

“와, 너무 멋있어!”

운동을 마치고 샤워실에 가서 거울을 본 우영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팔뚝은 운동을 하기 이전보다 2배나 커졌고, 그의 등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듯했다. 그의 다리는 오랜 달리기로 인해 단련된 마라토너 같았고, 그의 가슴은 하나의 돌덩이처럼 딱딱했다. 그의 가슴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식스팩이 생겼다. 우영은 이제 자신의 몸을 노출하는 것에 큰 자신감이 생겼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지?”

우영은 그가 계속 차고 다니는 목걸이의 힘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사실, 이 목걸이는 마법의 목걸이었다. 이 목걸이는 다른 사람의 근력 에너지를 강탈해서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근력 에너지는 근육을 빠르게 자라게 하는 하나의 촉진제였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근력 에너지가 빠르게 우영의 몸으로 퍼져 근육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그 속도가 일반적인 속도를 아득하게 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엄청났다. 남들이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 100의 운동을 해야 한다면, 우영은 1만 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밥을 먹어봐야겠군...”

우영은 몸이 자라는 것이 느껴지자, 닭가슴살이나 두부, 고등어 같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이요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체내에 쌓이는 단백질이 근력 에너지와 만나자, 이들의 조합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우영의 근육은 부스터를 단 것처럼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다.

“와, 우영. 너 몸 정말 좋아졌는데?”

“고마워, 다 너가 열심히 트레이닝 해 준 덕분이지.”

“그래도.. 이렇게 빨리 근육이 성장한 사례는 처음이야..”

일주일만에 우영의 몸은 미들급 보디빌더의 몸과 같아졌다. 헬스장에 가면 사람들은 우영을 힐끔거리면서 쳐다봤다. 이들은 놀라운 몸을 가진 우영에게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람들의 반응에 행복해진 우영은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운동이 자신의 삶에 스며든 것이 느껴졌다. 한편, 우영에게 근육 에너지를 제일 많이 빼앗긴 친구는 좌절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원래 들던 최대 무게의 60% 정도밖에 들지 못했다. 식단을 혹독하게 바꾸고, 단백질의 양을 늘리고, 레슨을 줄이고 개인 운동 시간을 1.5배나 늘려도 여전히 그의 근력 에너지는 전부 우영에게 뺏기곤 했다. 한숨과 원망, 그리고 번민의 시간이 이어졌다.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를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면서도,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끼는 우영의 친구였다. 한 10일 정도 지나자, 우영은 헤비급 보디빌더가 되었다. 그의 몸에는 살집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온 몸에는 두꺼운 혈관이 솟아 있었고, 그가 몸עד다가 힘을 주면 언제나 새로운 근육이 나타났다.

“이 사람은 포즈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되겠는데? 어떻게 자세를 취해도 근육이 보여..”

우영은 처음 보는 보디빌더들 앞에서 1시간 전에 배운 보디빌딩 포즈를 따라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빌더들은 우영을 프로 보디빌더 선수로 오해하였다. 우영은 그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특히, 운동을 마치고 나서 그들이랑 샤워장에서 같이 씻을 때 반응이 놀라웠다. 우영의 음경은 하나의 막대기와 같을 정도이고, 음낭은 거의 야구공만했다. 그의 몸에 도는 정력에 보디빌더들은 그의 몸을 두려워했다. 이제 그가 길을 걸어갈 때면 거대한 그늘이 생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몸은 그의 거대한 그림자 사이에 가려졌다. 그는 자신의 몸이 너무 두꺼워져서 혹시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공공장소에서 고민해야 할 정도였다.

“우영씨,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힘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우영을 부르곤 하였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우영은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었다. 우영의 몸은 생명력 넘치는 건강과 힘 그 자체였다.

“대체 운동 어떻게 하셨어요?”

“식단 좀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는 우영이었지만, 그가 근육질 몸매가 된 이유는 그의 목걸이였기 때문에 그는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었다. 우영은 이미 식단 조절을 중단한지 오래였다. 그는 먹고 싶은 것을 맘대로 폭식하는데도 전혀 살이 찌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신기

했다.그는 하루가 지날수록 강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경탄하면서 바라볼 뿐이었다. 역시나, 이유는 모른 채 말이다. 그렇게 우영은 한 달 동안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프로 보디빌더 헤비급 경기장에 서 있었다. 그는 이런 곳은 정말 프로들이나 오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는 대기실에서 그 목걸이를 차고 있었고, 목걸이는 한번 더 반짝이면서 근력 에너지를 우영에게 가져다 주었다.

“포즈 스타트!”

신나는 음악과 함께 참가자들이 힘을 주어 근육을 구부린다. 하지만, 그 누구도 거대한 근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우영을 이길 수는 없다. 우영이 힘을 주어 굽힐 때마다, 조금씩 근육이 커지면서 핏줄이 솟아오른다. 그가 입고 있는 팬티 또한 엄청나게 팽팽해서 잘못하면 끊어질 것 같이 아슬아슬하다. 심사위원들은 몸으로 만들 수 있는 예술의 경지를 본 것 같다는 심사평을 남긴다. 다른 선수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지만, 이미 그들과 우영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경계선이 그려져 있었다.

“이번 대회 우승은 우영 선수입니다.”

얼떨떨하게 허리에 찬 우승 벨트를 가지고 그가 운동하는 헬스장으로 들어온 우영은 격한 축하 인사를 받는다. 피자와 치킨같이 그가 그동안 몸을 가꾸느라 먹지 못했던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다. 그는 오랜만에 보는 맛있는 음식들을 배가 고프지 흡입한다. 사실, 그의 목걸이만 있다면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영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우승 축하한다, 우영아.”

“고마워 친구야. 그런데 너 여기서 헬스장 영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 요새 운동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이고.. 유감이네. 사람이 운동을 계속 해야지.”

“사실 나도, 운동을 좀 쉬어 볼까 해.”

“무슨 소리야. 너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냥, 뭔가 한계를 느꼈어..”

평소에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친구가 오늘따라 술잔에 술을 한잔 가득 따라 입 안에 들이킨다.

“우영아, 너 내 헬스장 인수하지 않을래?”

“내가 가능할까?”

“보디빌딩 우승자가 하는 헬스장이라면 이야기가 다를거야. 뭐 이론 공부는 금방 하니까. 어때?”

우영은 그가 삶의 거대한 갈림길에 마주했다는 생각이 든다.

Marvelous jewel

"Wow, it was a very rewarding trip."

Woo-young gets off the plane and stands at the airport's baggage claim area. It takes more time than expected for two huge carriers to appear. Woo-young decides to review his trip while waiting for his luggage. He went on a business trip to the company he worked for, but he also traveled for about three days in the second half using his annual vacation. It was a meaningful time to learn about new cultures by seeing exotic scenery and experiencing various things after a long time. And what he was most satisfied with this trip was the necklace he was wearing.

"Wow, this necklace is unique!"

Woo-young saw a necklace in a strange shape at the stand of the natives. It was a necklace with minerals carved similar to Moai stone statues. It cannot be said to be a jewel, but it was a necklace that was too interesting to say that it was made by carving ordinary stones.

"How much is this?"

Woo-young asked for the price with a gesture along with English. Native people give necklaces at 50% cheaper prices than expected. As soon as Woo-young purchases a necklace, natives recommend that Woo-young wear it right away. Woo-young reluctantly hangs a necklace on the river. As the cool feeling spreads to Woo-young's body, his feeling becomes refreshing. Woo-young is satisfied with his choice and thanks to the natives.

"Oh, my suitcase!"

While Woo-young reminisces about the memories of his trip, Woo-young's carrier is already moving away. He runs in a hurry and grabs the carrier. The carrier is so big that it comes right under Woo-young's chest. Woo-young tries to drag his carrier home, but it's so heavy that it's hard to even lift it. He puts his carrier on the bus home and falls asleep because he is tired.

"Wow, it's barely over..."

It was around 4 p.m. when Woo-young finished organizing his luggage at his house. He was resting after organizing his luggage, and he got a call.

"Hey, congratulations on your return home." On that note, you should come to the gym to work out!

It was his friend. His friend was so fond of exercising that he was called an exercise addict. His friend had a good physique thanks to him, so he was working as a fitness trainer. Woo-young also went to the gym where his friend was an employee and exercised. However, today was too

bothersome.

"I'm still jet-lagged, my friend..."

"If you work out hard today, it'll be okay". "Hurry up and come..."

Woo-young sighs and heads to the gym where he is. At this time, Woo-young heads while wearing the jewelry necklace he was wearing. Without paying any attention to what kind of incident it will cause.

"You didn't work out while traveling, did you?" "You're going to be so hard today that you're going to die."

Woo-young's friend thought he wouldn't have exercised because of his trip and prepared an extremely difficult exercise routine. Of course, Woo-young walked around a lot during the trip, but as his friend said, he did not exercise using his whole body, so he follows his friend's instructions without hesitation. As the exercise continues, rough breathing flows out of Woo-young's mouth. Sweat was flowing down his body. However, Woo-young had no idea that the jewelry he was wearing was sparkling.

"One more set!"

Woo-young does his best to maintain the weight lifting state by applying force. But something felt different. In the past, after the hell training conducted by his friend, he was sick as if he were going to die and had no energy, but now he's a little tired, but he wasn't that much.

"How does it feel to work out today?"

"It's a little hard, but it's bearable."

"See? It's all because you work out!" When you can come next time, come again! When you have time after work."

After exercising like that, Woo-young went home, washed up, and fell asleep right away. Woo-young's eyes automatically opened even before the alarm to announce the morning was heard. Usually, after severe exercise, it was difficult to get up the next day because of muscle pain. However, today he seemed to have lost all his fatigue and felt refreshed. Woo-young permeated the hopeful energy that seemed to be able to make a perfect day.

"Let's wash our face first".

Woo-young, who went to the mirror to wash his face, witnesses an incredible scene. His body, as flat as a piece of wood, began to revive. His slim arms began to develop as if sprouts sprang upon his slim arms, his soft chest began to harden, and his belly, which had protruded, disappeared and

abs began to be caught vertically.

"Is this a dream?"

Woo-young, who was looking in the mirror, recognized that this was real and couldn't speak for a long time. He washed quickly and went to work because he almost was late for work if he waited a little longer. He felt better after learning that he was changing. He was able to finish his company works happily today, which would have felt boring normally.

"Oh, Woo Young! Amazingly, you came to the gym first!"

"I think my body is getting better because I've been working out lately. I'm thinking about exercising at a stronger intensity today, is it possible?"

"Of course, I'll let you taste your limits."

Woo-young's friend trains Woo-young with a stronger intensity than yesterday. Woo-young thinks it's hard to exercise. However, it was only for a while that he was exhausted, and rather, he felt better as the sweat flowed. It was time to know why people who exercise visit the gym every day.

"Oh, I'm not feeling well today".

However, the ordeal began for everyone in the gym except Woo-young. Whenever Woo-young exercised, the necklace he was wearing sparkled. The necklace sucked in the muscular energy of people around Woo-young. People who constantly sucked in muscle energy were weakening their strength as the size and length of muscle fibers decreased. They were shocked that they could not lift the weight they originally lifted properly. They began to think about what was wrong with exercise or diet. They were shocked that their bodies had reached their limits. However, nothing they did wrong existed. However, it is only a mistake to exercise at the same time as Woo-young, who has a mysterious necklace.

"Wow, so cool!"

Woo-young, who went to the shower room after exercising and looked in the mirror, was shocked. His forearms were twice as big as before exercising, and his back seemed to be delicately carved. His legs were like marathoners trained by long runs, and his chest was as hard as a stone. His heart has a six-pack that people want so much. Woo-young is now very confident in exposing his body.

"How can such a miracle happen?"

Woo-young still didn't know the power of the necklace he kept wearing. This necklace was magical. This necklace played a role in robbing other people's muscle energy and delivering it to the owner. Muscle energy was a promoter that made muscles grow fast. Muscle energy of people who exercise



quickly spread to Woo-young's body, promoting muscle growth. Since the speed was far beyond the general speed, the effect was enormous. If others had to exercise 100 to become a bodybuilder, Woo Young could have the same effect with just 10.

"I need to control my diet..."

When Woo-young felt his body grow, he began to use a diet that could consume high-quality proteins such as chicken breast, tofu, and mackerel. When proteins accumulated in the body met muscle energy, no one could stop their combination. Woo-young's muscles began to grow as fast as wearing boosters.

"Wow, Woo Young. Your body has gotten really good."

"Thank you, it's all thanks to your hard training."

"But... I've never seen my muscles grow so fast like you."

In a week, Woo-young's body became the same as that of a middleweight bodybuilder. When he went to the gym, people glanced at Woo-young and looked at him. They couldn't hide their envy of Woo-young, who has an amazing body. Happy with people's reactions, Woo-young began to exercise harder. He felt that exercise had permeated his life. Meanwhile, the friend who lost the most muscle energy to Woo-young was going through a period of frustration. He weighed only about 60% of his original maximum weight. Even if he severely changed his diet, increased the amount of protein, reduced lessons, and increased his exercise time by 1.5 times, his muscle energy would still be lost to Woo-young. A time of sigh, resentment, and agony continued.

"Is my time over?"

He was Woo-young's friend who felt happy while watching his friend who worked out hard but felt an unknown sense of defeat. About 10 days later, Woo-young became a heavyweight bodybuilder. I couldn't find any flesh on his body. Thick blood vessels rose all over his body, and new muscles always appeared when he gave it strength.

"He doesn't have to learn how to pose". No matter how you pose, you can see your muscles."

Woo-young copied the bodybuilding pose he learned an hour ago in front of the bodybuilders he saw for the first time. Nevertheless, bodybuilders misunderstood Woo-young as a professional bodybuilder. Woo-young was embarrassed by their explosive response. In particular, the reaction was amazing when he washed with them in the shower after finishing exercising. Woo-young's penis was like a stick, and the scrotum was almost the size of a baseball. Bodybuilders were afraid of his body in his energy circling his body. Now, as he walked down the street, there was a huge shade. Most people's bodies were hidden between his huge shadows. He even had to think in public

about whether anyone would suffer damage because his body became too thick.

"Woo Young, help me with this!"

At the company where he worked, people used to call Woo-young when they had to use their strength. As if meeting people's expectations, Woo-young picked up heavy objects. Woo-young's body was full of vitality and health.

"How did you work out?"

"Please tell me what to eat."

It was Woo-young, who was asked a lot of questions, but he couldn't give an accurate answer because the reason he became muscular was his necklace. Woo-young has already stopped controlling his diet for a long time. It was amazing that he didn't gain any weight and maintained his physical condition even though he binge-eat what he wanted to eat. He just looked at himself in awe, becoming stronger as the day passed. As expected, without knowing why. So Woo-young spurred the exercise for a month. And a month later, he was standing at a professional bodybuilder heavyweight stadium. He thought these places were professional. He seemed to be dreaming. Then, he was wearing the necklace in the waiting room, and the necklace glistened once more, bringing muscle energy to Woo-young.

"Pose, start!"

Participants flex their muscles with exciting music. However, no one can beat Woo-young, who has huge muscle energy. Whenever Woo-young bends with strength, the veins rise as the muscles grow little by little. The underwear he's wearing is also extremely tight, so it's close as if it's going to break if he does something wrong. The judges leave a review that they seem to have seen the state of the art that can be made with their bodies. Other players also try their best until the end, but there was already an unknown boundary between them and Woo-young.

"Woo Young won this tournament."

Woo-young, who came into the gym where he works out with a belt for winning the tournament, is greeted with fierce congratulations. There are many foods such as pizza and chicken that he has not been able to eat while taking care of himself. He inhales delicious foods he hasn't seen in a long time, whether he is hungry or not. If he had his necklace, he didn't have to control his diet, but Woo-young didn't know that.

"Congratulations on winning, Woo Young."

"Thank you, friend. "Don't you need to open a gym here?"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give up exercising these days."

"Oh, I'm sorry to hear that. People should keep exercising."

"I'm thinking of taking a break from exercis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 one works out as hard as you."

"I just felt a limit..."

A friend who usually never touched a drink pours a glass of alcohol into his mouth today.

"Woo Young, will you take over my gym?"

"Will I be able to do it?"

"If it's the gym where the bodybuilding winner does, the story will be different. Well, I can study theory quickly. What do you think?"

Woo-young thinks he is facing a huge crossroads in his life.